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8:17-19
2026 년 8 월 2 일 오전 11 시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 주여 도우소서 >

선지자(先知者)라는 말은 한자로 先(먼저 선), 知(알 지), 者(사람 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먼저 아는 사람”, “앞을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일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은 하사엘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왕하 8:11).

엘리사가 온 이유는 하사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앞이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왕하 8:12). 엘리사의 눈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미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계시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 주신 것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강대국 앗수르가 아니라 훗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사 39:6).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은 아직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1. 거짓 평강과 참된 평강

반면 거짓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안전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와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 7:4).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 6:14). 그러나 그들이 선포한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렘 7:9-10). 십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외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삶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과거 실로의 성소를 버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심판하실 것이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렘 7:14-15). 여러분, 참된 평강은 거짓된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과 법궐라는 성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사 48:18).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사람에게 평강은 강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풍성한 공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반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22 절).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1 절).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실이 없었고, 그들의 삶에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2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4 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렘 7:2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렘 7:23).

2.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평강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렘 7:24).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서 평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렘 7:25).

하나님은 한 번 경고하시고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백성이 돌이킬 기회를 얻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렘 7:26).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귀를 막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붙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렘 8:5). 회개를 거절한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렘 9:11).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사 48:17).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 10:13).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십계명을 주셨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기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삼가 지키면 평강과 공의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사 48:18).

여기서 공의(公義)는 公(공평할 공)에 義(옳을 의)로서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의 나라에는 공의가 가득하였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삼하 8:15).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하면서부터 다윗의 집과 나라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공의가 소멸되었습니다. 장자 암논은 이복동생 다말을 범했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가정의 갈등은 결국 나라의 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평강과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그를 따랐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세바를 따르며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삼하 20:2). 물론 세바의 반역도 진압되었지만, 그의 외침은 훗날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떠나는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공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거짓 보고를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줍니다. 또한 다윗의 신하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촌 형 아마사를 죽입니다. 공평해야 할 곳에서 불공평이 나타났고, 옳바라야 할 곳에서 욕심과 권력이 앞섰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볍게 여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평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평강은 강처럼 흐르고, 공의는 바다 물결처럼 넘칩니다.

가정에 평강과 공의가 넘치고, 교회에 화평과 정의가 충만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의를 바다 물결처럼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생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사 48:19).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오늘의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보는 기쁨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기쁨도 허락하십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시 128:6). 그러나 이러한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 128: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공의를 세우시며, 성령 안의 희락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함으로 평강과 공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